

주일의말씀

“자선은 이웃을 살리는 길이다”

김영우 마르코 신부
매호성당 주임



오늘은 대림 3주일입니다. 교회는 기쁨의 주일인 오늘을 자선의 날로 정하여 아기 예수님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특히 불우한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속과 희생으로 대림절을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왔으니 용기를 가지고 기쁘게 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의 사명은 바로 소외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진정한 기쁜 소식인 복음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다른 무엇을 기다리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기다리는 우리들이라면, 가난한 이웃을 결코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삶은 우리 주변에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명을 부인하는 삶일 것이고, 예수님의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선은 이웃에게 그냥 한 톨 던져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선은 먼저 어떤 모습을 지녔던 간에 이웃을 하느님께서 만드신 고귀한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존중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자선은 이웃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시기까지 이웃을 살리는 구원행위를 이룩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도 자기 자신을 죽일 때만이 이웃을 존중하게 되고, 이웃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봅시다. 당신 자신을 내어 놓으시면서 우리들을 살리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신앙인들이라면 메시아적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초라한 이익이나 욕심 때문에 이웃을 곤욕스럽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을 곤욕스럽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진정한 겸손의 자세로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며 존중하고 그들을 살릴 때, 이번 성탄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게 됩니다. 가난한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가까이 다가온 성탄절을 기쁘게 준비하도록 노력합시다. 



제10대 대구대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착좌식

- 일시: 12월 20일(월) 오후2시
- 장소: 남산동 성 김대건 기념관
- 착좌식은 TV와 라디오로 실황 중계됩니다.
- TV: 평화방송(CH33), 라디오: 대구평화방송FM(93.1MHz)

10. “여러분 자신을 희생으로 바치십시오.” – 성 유스티노 신학교 설립

문화홍보실

드망즈 주교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업 중 하나는 한국인 사제 양성이었습니다. 1914년 10월 1일 설립된 성 유스티노 신학교 건물은 지금도 남산동 대신학원 캠퍼스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드망즈 주교님께서서는 세계 각지에 한국인 사제 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호소하셨는데, 여러 나라에서 독지가들의 성금이 답지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거액을 기부한 한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인지 지금도 모릅니다. 다만 상해에 살고 있었고, 새로 지을 이 신학교의 주보로 유스티노 성인을 모셔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 유스티노 신학교”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신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수도 구해야 하고, 학과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학생, 즉 사제 지망생들이 있어야 합니다. 드망즈 주교님께서서는 신학교 건립을 위해 교우들에게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을, 그리고 사제 지망생을 많이 봉헌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신학교는 장차 수많은 한국 사람들을 교회에 인도할 사제들을 양성하는데 필요합니다. ... 따라서 신자들은 이러한 지향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합당한 자질을 가진 학생들을 신학교에 많이 보내어, 성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으로 바칠 신부가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사제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교우들의 기도와 희생을 모아 바치는 사람, 앞장서서 기도하고 보속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단에 서서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하고 말하면서 자기 인생을 교우들을 위해 다 내놓는 사람이 사제입니다. 지금 사제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구의 신학생들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 청춘을 몽땅 희생으로 바치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천금 같은 자식을 주님께 바치는 부모님의 봉헌, 가족과 은인들의 희생, 사제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청하는 교우들의 밤낮 없는 기도가 없다면 제 힘으로 성소의 길을 걸을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발이 되고 목소리가 될 우리 신부님들을 어디 다른 데서 수입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네 자식들 중에서 주님께서 뽑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은 거룩한 신부님들을 모실 자격을 얻도록 열심으로 기도하고 기쁘게 희생을 바칩시다.

더욱 더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미사

대림 제3주일 자선 주일

입당성가

124 은혜로운 회개의 때

화답송

◎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431 찬미의 송가

영성체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파견성가

446 우리는 주의 사랑을

영성의향기

::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는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작은 생명체로부터 광대한 은하수에 걸쳐 모든 것이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연을 통해 하느님의 힘과 아름다움, 지혜와 선하심이 드러납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인간 역사의 안에서, 즉 아담과 모세, 만남의 장막과 성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겨 주신 일을 완수함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몸의 지체로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완수할 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난 목적입니다. 세상 만물과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좋으신 하느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 “아버지, 참 좋습니다!”하고 찬미를 드립니다. 자녀들이 인생살이 가운데서 아버지의 선물을 알아보고 기뻐하며, 좋으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 교구사목국 권가타리나 수녀 -

짧은글 - 깊은생각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의 앞일은 알 수 없고, 또 세상일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다 보니 사람들은 자주 불안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대상 중 40%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이고, 30%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며, 12%는 헛소문이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 가운데 10%는 건강에 대한 것인데, 걱정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이 더 나빠지니까 그야말로 쓸데없는 걱정이고, 오직 8%만이 진짜 걱정할 만한 문제라고 합니다. 신앙이 있는 곳에는 불안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려워할 수가 없고,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세상만사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분께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 율거은 글입니다 -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2.13(월)은故정춘석(아우구스티노)신부님 7주기입니다.

- 행사 / 모임 -

한국 꽃미술 아트페어, 크리스마스 아트페어

- 일시: 12.18(토)~31(금)
- 장소: 갤러리 아테나·파리 동산동 제1점
- 주관: 전례미술연구전시팀, 갤러리 아테나·파리
- 주최: 대구대교구전례위원회
- 문의: 010-8858-5925

교구설정 100주년 기념 생명사랑나눔 대축제

- 일시: 2011.5.7(토), 8(일) 양일간
- 장소: 교구 내 운동장 및 대강당
- 내용: 바자회, 사회복지박람회, 다문화축제
* 바자회 참여 개인, 본당, 단체 모집
- 문의: 생명사랑나눔 운동본부 253-9991

- 성소 / 파직 -

2011년 교구설정 100주년기념 동계 성소파직

- 대상: 중1,2 (내년 기준)
- 일시: 2011.1.11(화)~12(수)
- 대상: 고3, 대학, 일반 (내년 기준)
- 일시: 2011.1.17(월)~20(목) 3박4일
- 장소: 동명·한티, 마감: 12.29(수) 16:00
- 문의: 250-3071 / 010-6776-3071, 본당사무실

예수의 가리마스 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12.18(매월 셋째주 토 19:00~21:00)
- 장소: 마한1동 성당 수녀원
- 문의: 010-2568-5231

성빈첸시오아바오로사랑의말회 성소모임

- 일시: 12.19(일) 14:00 (매월 셋째 주일)
- 장소: 계산주교좌성당(빈첸시오회 회합실)
- 문의: 010-6625-0927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12.22(수) 20:00
 - 문의: 대구청원소 010-5517-8833
- #### 사랑의 씨든 수녀회 대림피정(미혼남,녀)
- 일시: 12.18(토)16:00~19(일)14:00
 - 장소: 논산 씨든 영성의집
 - 문의: 062/571-3004 / 010-5705-5004

예수의꽃동네자매회 성소모임

- 일시: 12.26(일) 10:00~15:00, 음성수녀원
- 대상: 대학~35세미만
- 문의: 011-464-1265

- 모집 / 교육 -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시모집(나군, 다군)

- 원서접수: 12.18(토)~23(목)
- 인터넷접수 www.cu.ac.kr
- 문의: 입학관리팀 850-2580
- * 2010년 대구 경북 5개 대학대학중 취업률1위달성
- * “잘 가르치는 대학” 전국 BEST11선정

푸른평화예술치료겨울방학캠프

- * 일시: 12.27(월)~30(목) 3박4일
- * 장소: 진해 청소년 야영장
- * 주관: 푸른평화예술치료상담연구소
- * 문의: 794-6022 / 010-3513-2225

성교육강사 양성교육

- 일시: 2011.1.12(수)~18(화)
- 문의: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653-7755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 진로캠프

- 대상: 중2~고1(현재기준)
- 일시: 1차 2011.1.4(화)~6(목)
2차 2011.1.11(화)~13(목)
- 문의: 656-6655

※ 스키캠프 모집 중

2011년도 산자연학교 초·중등 신입생모집

생태영성으로 아이들의사회적 소통과

이야기,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연체험 중심의 대안학교를 희망합니다.

- 교장: 정홍규 신부
 - 문의: 054)338-0530(www.sanschool.org)
- #### 가톨릭요셉발간회 강좌 '발은 제2의 심장'
- 일시: 매주 토요일 14:00~16:00(10회)
 - 문의: 476-7774(교재 및 도구포함10만원)
 - 홈페이지: www.footfather.com

2011 인천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대학신입생모집

- 원서접수: 12.17(금)~22(수) www.iccu.ac.kr
- 학과: 문화예술콘텐츠학과, 회화과, 환경조각과, 시각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 문의: 입학홍보과 032)830-7002

해외 파견선교사를 위한 교육

- 16차: 2011.1.3(월)~28(금)
- 17차: 2011.2.7(월)~3.7(일)
- 대상: 해외로 파견되는 선교사, 교포사목자
- 문의: 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 02)953-0613

- 채 용 -

도동유치원(울릉도) 교사 채용

- 자격: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문의: 660-5163

- 안 내 -

교구법원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손성락(요셉), 정재엽, 김병균

12월 가나강좌(1인당2만원, 당일접수)

- 일시: 12.19(일) 09:30~18:30
- 장소: 가톨릭의료원 의대 마리아관
- 문의: 641-5678 / 010-8853-7458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1대리구 성소후원의 월례미사	12월 13일(월) 오전11시	계산주교좌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의 미사	12월 13일(월) 오전11시	신평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의 월례미사	12월 13일(월) 오전11시30분	2대리구청-범여성당	포항지역 밀알후원의 미사	12월 13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의 월례미사	12월 13일(월) 오전11시	3대리구청-월성성당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12월 14일(화) 오후2시	성모당

대구 큰사랑요양병원

▶신경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상주
▶한의학 진료 ▶중풍, 팔기압, 재활치료
입원상담 ☎ 951-9119
경대교에서 대구공고방향 100m
병원장 김 지 현 의사

5 원독연 박사의 차원 학습법

독서 · 논술 · 언어
교과서 분석 독서(초·중·고)
임채영(가릴라) ☎ 784-2180

아가다 요양센터

공동생활가정, 주간간, 단기보호
방문요양, 복지용품판매 및 대여
☎ 795-4242 / 815-2700
• 정성껏 보살펴드리겠습니다.
고광홍(안드레아) · 박성자(아가다)

대장 · 항문(치질, 변비) 전문클리닉 늘 시원한 학문외과

원장 의학박사 :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 · 변비, 소아변비 · 변실금, 위 · 대장내시경
여성전용 입원실 · 지하 무료주차장 완비
959-7175(치질치료), www.hangmunso.com
신천대우아파트 복원오거리
친신교 앞새마을관 대우은행
시정 200m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보석 전문점 미석

특허청 등록업소 0252134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3번 출구
임종화(바실리오)
423-6336, 011-809-3003

결혼상담

27년 전통의 성가정을위한 만남의 장
♥ 성심결혼
558-3003, 644-4007
비산네거리(서부 초등학교 옆)
류성일(마리아) · 함(논나)

라식, 백내장수술전문

김기산안과
KIM K I SAN EYE CENTER
의약박사/면허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 257-8875 www.kisanlasik.co.kr